

‘사회적 관광’ 정책 관점을 통한 부산지역 통일교육콘텐츠 개발 방안

김현정 동아대학교

논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광’과 ‘교차 준수’에 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지역관광지원 정책과 지역통일교육콘텐츠 개발 전략을 통합할 수 있는 개념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부산지역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 기존의 발굴된 관광자원을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산학, 분단사 등에서 연구해 온 사료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전쟁 당시부터 해당지역에서 거주해 온 지역민 10인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분단과 연관된 장소의 문화적 해설 방안 및 지역통일교육콘텐츠 개발 방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공동체의 기억을 저장하는 기능을 지닌 장소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사회적 관광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통일교육, 통일교육콘텐츠, 사회적 관광, 지속가능성, 교차준수

I. 서론

2014년 연말 개봉한 영화 ‘국제시장’이 상영 두 달도 채 되기 전 이미 1300만을 돌파하며 한국영화 역대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해당 영화는 흥행에 성공한 만큼 다양한 시각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하였다. 여러 관심 사안 중에서도 피난민 출신의 주인공 덕수(황정민 역)가 현대사의 질곡을 파란만장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제목으로 지정된 ‘국제시장’이라는 장소에 주목해 볼 만하다. 일반적인 피난민이 아무런 연고도 없이 긴 피난길에 가족이 흩어지며, ‘영도다리’ 혹은 ‘40계단’ 등에서의 재회를 약속하고 하릴없이(어찌 해 볼 도리 없이) 기다림을 이어온 데 비하면, 어쩌면 영화 속 덕수는 더부살이 처지였을지언정 가족이 거처할 장소가 있었던 소수의 피난민이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당시 ‘하꼬방’이라 불리는 판잣집을 불법 구매해 아미동 일대, 부산 본역(현 부산 중구 중앙동 무역협회 회관 옆) 부근, 우남공원(현 용두산 공원) 일대, 초량에서 산복도로로 이어지는 등성이 일대에 산재하여 거주하게 된다. 당시 일부지역은 난개발로 일대에 걸쳐 산복도로를 형성하기도 하고, 또 중심가 지대에서는 휴전이후 강제이주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영화 속 주인공 덕수의 삶만큼이나 부산지역 원도심 일대에는 분단과 연관되어 역사적 해설이 필요한 장소가 가득하다. 이와 같이 분단과 연관된 지역통일교육 콘텐츠의 발굴은 영화 등 매체를 통해 집중적 관심을 끌기도 하나, 통상 학문적 접근이나 지자체가 발굴해 내기 마련이다. ‘국제시장’의 경우 영화의 흥행과 더불어 줄거리 자체가 분단사와 맥을 같이한 덕택으로 해당 장소의 문화해설이 함께 부각되었으나 ‘40계단’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러한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다. 해당 장소의 경우 한국전쟁 당시 ‘경상도 아가씨’ 등의 유행가요에 등장한 이후, 1999년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주연 배우 간격투신에 등장한 것이 알려져 있으나, 해당 장소에 관한 어떠한 문화

적 해설이 가미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관광자원이 될 만한 이러한 장소를 어떠한 방법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지역통일교육콘텐츠로서 어떻게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인가. 가깝게 영화 ‘국제시장’의 흥행 이후 해당 지역 상인들의 반응이나, 주인공의 가게 ‘꽃분이네’를 둘러싼 분쟁 과정을 볼 때 단편적인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접근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이를 정책적 지원에까지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관광자원에 대한 지원 정책과 지역통일교육콘텐츠 지원 방안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이에 우선 ‘사회적 관광(social tourism)’에 관한 개념 정리 및 정책적 도입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통일교육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도화 과정에서 ‘교차 준수(Cross-compliance)’ 전략의 적용 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적 관광’이란 지속가능 관광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관광소외 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 정책이다. 즉 관광 소외계층에 대한 관광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 목적을 둔 전략이다. 기존의 관광지원 정책이 생산자 중심이며 관광자원 개발에 국한하여 진행된 반면, 사회적 관광은 사회적 관광자원 개발과 함께 소비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교차 준수’란 특정집단 혹은 특정 목적의 정책적 지원 시 이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부가적 의무사항을 부여하거나 또 다른 영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도록 강제하는 정책 전략이다. 이와 같은 정책 전략은 단편적인 관광정책, 통일교육 제도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세수가 절대부족하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나 영역은 다변화한 현재, 다중 목적의 포괄적 영역을 아우르는 정책 구현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광’과 ‘교차 준수’에 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지역관광지원 정책과 지역통일교육콘텐츠 개발 전략을 통합할 수 있는 개념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부산지역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 기존의 발굴된 관광자원을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산학, 분단사 등에서 연구해 온 사료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전쟁 당시부터 해당지역

에서 거주해 온 지역민 10인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분단과 연관된 장소의 문화적 해설 방안 및 지역통일교육콘텐츠 개발 방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II. 사회적 관광정책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

1. 사회적 관광의 이론적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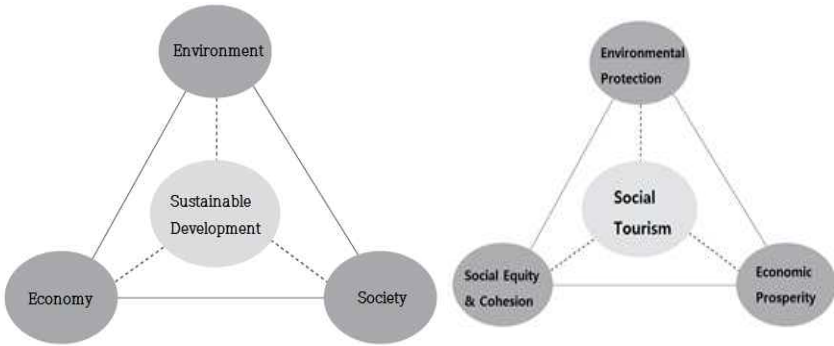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관광자원을 크게 유형자원과 무형자원으로 나누고 유형자원은 자연적 관광자원, 문화적 관광자원, 사회적 관광자원, 산업적 관광자원, 관광·레크리에이션 자원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무형관광자원은 인적 관광자원과 비인적 관광자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국가기록원 2006). 이외에도 최근 한류를 통한 관광 확대나 의료관광 등의 활성화로 한 국가가 가진 모든 사회, 경제, 문화적 자원들에 대한 사회적 관광자원의 개념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관광의 개념과 이에 따르는 정책은 관광자원에 대한 개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 관광은 주로 유럽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관광 지원정책에서 주요 사례를 찾을 수 있다.

EU 관광산업의 경쟁력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개념¹⁾의 정책적 바탕에 뿌리를 두고 있다. 관광 목적지의 질적 측면은 자연자원, 문화 환경 및 지역 공동체와의 매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장기적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해서는 경제, 사회문화 및 환경에 균형이 필요한 것이다(European Commission). 지속가능한 발전²⁾은 성

-
- 1) '지속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는 1979년 유엔 심포지엄의 주제로서 처음 등장하여, 1986년 발표된 유엔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일명 the Brundtland report)에서 차용되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 2)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 (1) '필요'의 개념, 특히 우선순위가 우선되어야 하는 세계 빈민

장이 현재의 빈곤 감소와 번영 증진을 목표로하며, 동시에 미래 세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포괄적이며 환경적으로 건전해야 함을 인식하는 것으로, 인간과 지구 그리고 번영을 위한 장기적 이익 공유의 개념이라 하겠다(World Bank).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 ‘지속 가능한 관광’의 개념은 1980년 3월 개최된 세계환경보전전략(the World Conservation Strategy) 및 환경개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전략 제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여 대중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Weeden 2002, 143).

<그림 1> 지속가능한 개발 및 지속가능한 관광의 기본 개념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속가능성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가치의 세 가지 요소 충족을 요구한다. 관광영역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정책의 입안 시에 세 가지 항목 충족요건이 높은 방향성을 지향하며, 정책 우선순위 결정 시에도 이와 같은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관광 및 지속가능한 개발은 그 동안의 연구를 통해 다양하게 정의되며, 매우 넓은 의미로 통용되지만, 이러한 구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이에 관한 학문과 제도적 논쟁은 몇 가지 주요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Ayuso 2007, 144). 즉 지속가능한 관광의 정의 및 요소

의 필수 요구, (2)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환경의 능력에 대한 기술 및 사회 조직의 상태에 의해 부과된 제한의 개념이다(Brundtland, 1987, 43).

들은 아래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본 개념 <그림 1>의 좌측을 바탕으로 하여 <그림 1>의 우측과 같은 분석틀로 제시될 수 있다.

국제연합 세계관광기구(UNWTO: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에서는 사회적 관광을 방문자, 산업, 환경 및 유치 지역 사회의 요구를 해결하고, 현재와 미래의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을 고려한 관광이라 정의한다(World Tourism Organization).

지속가능 관광개발은 사회·문화, 환경·생태, 경제적인 측면의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현상을 전제로 현 세대 및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면서 관광대상과 관광지, 나아가 관광객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시의 개발방식을 의미한다(유정우 2008, 38). 즉 자율적 역량을 갖춘 지역사회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요소인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발과정이라 하겠다.<표 1 > 참조.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속가능한 관광 두 가지의 개념은 각 이해관계자의 서로 다른 관점에 따라 다양해 질 수 있다.: 이해관계자는 관광 산업 행위자, 정부, 국제 비정부기구, 지역공동체, 환경 운동가 등으로 분류된다(Tepelus and Córdoba 2005 135). 따라서 때에 따라 특정 지방의 발전을 염두에 둔 ‘사회적 관광’ 연구가 있으며, 이해관계자 간 관계 혹은 매개 체계(intermediary system)의 중요성에 역점을 두고 지속가능성을 논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특정 측면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앞서 제시된 세 가지 항목은 기본적 요소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발을 위한 전략은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목표에 따라 집적 계획된 프로세스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관광 자원의 한계를 수행 능력이나 기술의 진보 및 투명한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 극복하여야 한다(Ayuso 2007, 144). 이러한 부분이 정책 설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흔히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구체적으로 생태관광과 녹색관광의 형태로 제시된다. 생태관광은 환경, 문화의 이해를 목적으로 관광수입 중

일부분이 자연환경보존을 위하여 사용되어 지역주민에게 개발이익이 환원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녹색관광은 도시민들이 보전되고 있는 농촌, 산촌, 어촌지역에 머무르면서 그 곳의 생활을 체험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한익 2010, 402).

<표 1> UNWTO가 제시하는 ‘사회적 관광’을 위한 지속가능성의 목표

항목	내용
환경 보호	-관광 분야의 미래는 다양성 보존에 좌우됨. -결과적으로 미래 보존을 위한 관광으로부터의 소득 증가를 생산하는 자원지역을 보존해야 함. -UNWTO는 관광산업과 관광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간 관계를 좀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을 위해 관광영역을 이끌고 지원해야 함.
사회적 형평성 및 결속	-국가와 국민 간 문화다양성의 이해와 존중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원리임.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한 소득자원의 제공은 더 높은 그들의 문화 유산을 소중히 하도록 사회를 격려함. -UNWTO는 정기적으로 성평등 문화 보존이나 관광 개발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여 관광에 관련된 특정 윤리적 문제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에 참여함.
경제적 번영	-빈곤 감소와 개발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광의 기여가 점점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관광영역의 지리적 확장과 노동 집약적인 특성은 고용 확대를 지원함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 위치한 외딴 지역 혹은 농촌 지역에서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출처: (UNWTO)

이를 국가 차원에서 고려하면, 사회적 격차 해소 혹은 낙후산업 및 지역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정책적 지원을 고려하면 지원제도를 위한 보편타당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그림 1>의 ‘사회적 관광을 위한 지속가능성 개념’의 항목별 기준을 바탕으로 한 뚜렷한 정책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적 관광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정책전략은 첫째, 환경보호와 사회발전 그리고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local) 차원의 정책을 공정한 선발과정을 통해 지원하는 것과 둘째, 관광산업 분야에 약자 계층을 유형화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관성을 지닌 공동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의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지역관광이라는 특정분야 지원정책을 위한 프로세스의 합리성과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2. 사회적 관광을 위한 정책 전략

‘사회적 관광’의 관련 연구는 사회적 관광의 관점을 다시 지속가능 관광(sustainable tourism) 및 접근가능 관광(accessible tourism)으로 분류한다. 이들 영역별 개별 산업 목표를 설정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우선 기존의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 환경,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목표를 뚜렷이 세워, 지역 차원의 구조적 문제점을 공동정책 지원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접근가능 관광을 위해 공동체 내 관광산업에 대한 집단 간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이를 종합하면 관광산업과 관련한 공동체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뚜렷이 구분된다. 첫째, 공동체 차원의 사회적 측면에서 구조적 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지원 정책과 둘째, 지속가능 개발 개념에 기초한 지속가능 관광 지원정책으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는 본 연구의 목적 범위 밖의 내용으로 본 논문에서는 전자의 경우에 대하여 집중하였다. 전자의 경우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접근성 격차 해소에 사회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관광 참여에 대하여 경쟁력을 상실한 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이해관계자 층을 확대시켜 경제적 성장까지 목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관광부문 약자에 대한 지원은 명확히 구조적 측면의 지원정책이

란 측면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해당영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이와 같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지지한다.

<표 2> 칼립소 제도의 주요내용

	주요내용
4개 지 원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 청장년 계층 (18세-30세) • 재정 혹은 기타 압력에 처한 가족 • 장애인 • 65세 이상 고령세대
행 동 지 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된 청장년 계층이나 고령세대, 저소득 가족과 장애인 등 특정그룹에 특히 비수기 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에 가능한 자발적 관광 접근 메커니즘을 제공함. • 지역별 비수기 기간 안내 등을 위해 온라인 정보 교환 메커니즘을 개발 제공함.

출처: (European Union)

‘접근가능 관광’의 시행 사례로, 해당분야 EU의 정책은 대표적으로 ‘칼립소(Calypso)’ 정책 및 ‘고령자 관광정책(Tourism for Seniors)’의 지원책을 들 수 있다. 이는 EU의 공동정책 목표가 해당산업의 경제적 성장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동의 미래가치를 추구하는데 있음을 상기시킨다. 관광 분야의 공급의 질을 개선하고, 공급 측 이해관계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EU는 공동체 차원에서 ‘비수기 관광(Low-season tourism)’ 지원을 통해 역내 시민 중 관광 소외계층의 관광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비수기 관광을 위한 프로젝트가 바로 ‘칼립소(Calypso)’ 지원제도이다. 칼립소 이니셔티브(The Calypso initiative)는 소외계층이 비수기 기간 동안 여행에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European Union). 관광분야에 이미 갖춰진 시설 및 직원을 비수기에도 활용하면서, 관광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한다면 경쟁력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으며, 이것이 관련 영역 발전을 위한 ‘교차준수 (Cross-compliance)’ 정책전략이라 하겠다. ‘칼립소’ 제도의 주요 목표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그리고 사회적 경제 사이의 협력 관계를 증진시킴에 있다. 동 제도는 다음과 같은 네 개의 대상 그룹에 관광객의 비시즌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네 개 그룹은 청년 세대와 고령 세대, 장애인 및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위의 <표 2>는 칼립소의 세부 사항을 나타낸다.

칼립소 프로젝트와 같은 사회적 관광은 뚜렷한 대상층의 기준을 내세워 해당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이들 대상층의 관광접근 격차를 해소한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으며, 동시에 지역사회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정책 측면에서의 교차준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EU는 칼립소 프로젝트를 위한 대상별 기준(Criteria for target groups in Calypso)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동체는 비수기 동안 지원을 받을 4개 그룹에 대해 세부적 지원 기준과 더불어 지원 항목 및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관광접근성 증진은 역내 수요자를 늘려 관광산업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제 분야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공동체의 이중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례로 EU의 ‘Tourism for Seniors’ 지원 아래 공동체의 지원을 받아 각 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다. 스페인의 ‘Europe Senior Tourism’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는 경험을 공유하면서 활동적인 휴가를 즐기고자 하는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해 설계되어 스페인 정부에 의해 추진 중인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고령 계층이 완벽한 휴가에 접근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기 위함을 목표로 2009년에 시작된 스페인의 관광 접근 가능 정책 프로그램이며, 지금까지 16개국의 140,000 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누려왔다(Europe Senior Tourism). 또한 프랑스에서 시행되는 ‘Seniors en vacances’를 들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관광 경제의 개발과 낮은 소득과 고립된 노인의 사회 연계를 위해 설계되었다. 60세 이상 혹은 5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프랑스에 거주하며 은

되 혹은 비근로 상태의 대상자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CNAS (L'action sociale sourire compris)). 이와 같이 공동체가 시행하는 지원정책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각 국가 및 지자체가 계획하여 지원받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관광에서 소외되는 있는 또 다른 계층으로 ‘청장년층’를 들 수 있다. 전체 인구에서 이들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비단 관광에서만 의 문제는 아니다. 해당 영역의 지원은 공동체 내 세대간 관광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젊은 세대가 공동체의 서로 다른 지역을 이해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다중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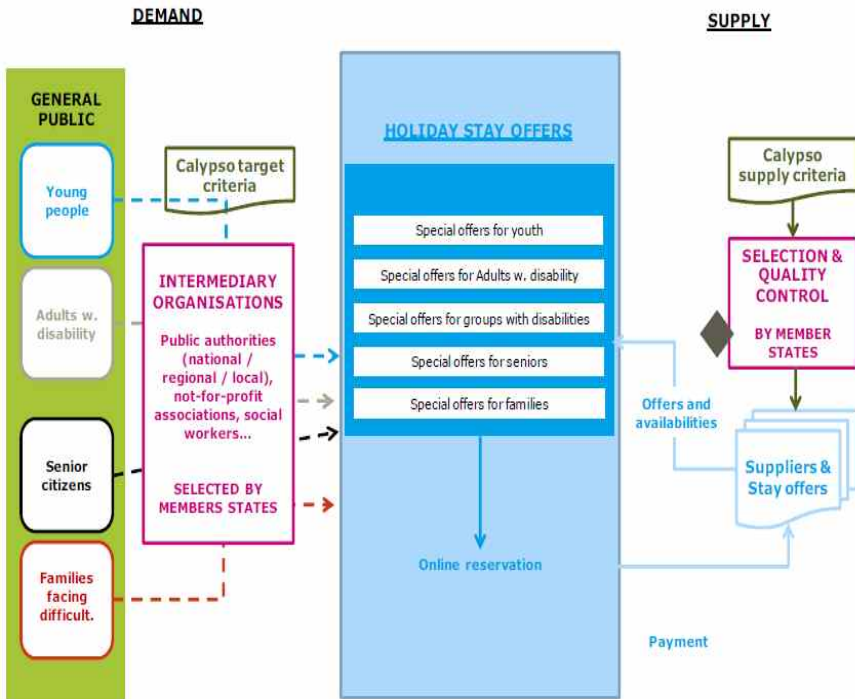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사회적 관광’ 개념 하에 각 집단의 관광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접근 가능 관광’ 프로그램은 세부적 기준으로 국가단위 혹은 지역단위의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조율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즉 ‘접근 가능 관광’이라는 목표 각 소외계층 대상군을 분류하여 각각의 지원기준을 국가 혹은 지역단체가 정하여 제시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보충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자 간을 매개하는 과정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이 ‘칼립소 플랫폼 제도(Scheme of Calypso Platform)’로 구현된다. 칼립소 플랫폼은 자체 교환 메커니즘이 아니라 칼립소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도구이며, 이 도구는 각 대상의 특정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작용한다(European Commission, DG Enterprise and Industry 2010, 106). 공공의 영역인 국가, EU, 지자체 단위가 각 영역별 지원 지침 및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을 모집하면, 민간 관광영역의 숙박 등 공급자의 비수기 특혜 플랜이 자발적으로 지원한다. 제도 하에서 이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플랫폼 및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이 위의 <그림 2>와 같이 진행되는 것이다.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관광’ 지원정책은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축 중 항목인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정책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 공동체, 지역 단체가 역할을 분담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체제를 관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관광’은 지역공동체 혹은 국가가 추구하는 관광지원 정책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 목표임을 분석하였다. 즉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만을 강조하기보다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그림 2> 칼립소 플랫폼 제도(Scheme of Calypso Platform)



출처: (European Commission, DG Enterprise and Industry)

Ⅲ. 사회적 관광정책 개발 대상으로서의 부산지역 통일교육콘텐츠

1. 분단의 기억장소에 대한 지역민 인터뷰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부산지역 내 거주하거나 피난을 온 대상자 10명을 대상으로 전쟁 및 분단에 관한 장소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부산지역의 통일교육과 관련한 사회적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이 필요한 것이다. 대상자들이 7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기준 질문 외에는 자연스런 대화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부산학 혹은 분단사 등의 기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71세~84세 연령대이며, 응답자의 학력은 중졸 1인, 고졸 2인, 대졸 7인이다. 이들은 청년 시절 대학 진학, 군대 등으로 해당 기간 부산 외 지역에 거주한 적이 있으나, 이외의 기간 대부분을 부산지역에 거주해 왔다고 응답하였다.

<표 3> 인터뷰 대상자

성별	남	4명	
	녀	6명	
연령대	70대	7명	
	80대	3명	
거주지	부 산 시 내	해운대구	4명
		수영구	2명
		중구	1명
		남구	2명
		영도구	1명
직업군	유통업 종사 후 은퇴 1명		

	자영업 종사 후 은퇴 4명 주부 1명 금융업 종사 후 은퇴 2명 의료업 1명 의료업 종사 후 은퇴 1명	
학력	중졸	1명
	고졸	2명
	대졸	7명
피난 경험	유	2명
	무	1명

이 인터뷰는 소수의 인원을 통해 진행한 것으로, 심층면접에 의해 결론을 추론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향후 진행할 연구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콘텐츠 개발 방향을 파악하고자 함에 본 인터뷰의 진행 목적이 있다.

<표 4> 주요 질문에 대한 요약

분단/전쟁 관련 내용	분단/전쟁 관련한 장소에 관한 기억	가장 인상 깊은 장소 및 해당 이유 전해주고자 하는 문화해설
		장소의 변화한 내용에 관한 진술
피난민 관련 내용	피난 관련한 장소 에 관한 기억	가장 인상 깊은 장소 및 해당 이유 전해주고자 하는 문화해설
		장소의 변화한 내용에 관한 진술

우선 기본 질문으로 분단 및 전쟁과 관련한 장소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에 대해 물었다. 흥미로운 점은 10명 모두 객관식으로 주어진 해당 질문³⁾에 ‘40계단’이라 응답하였다. 응답 이유는 개별적이다. 전쟁 중 초등학교에 진학한 대상자 1인은 학사(學舍)가 없어 ‘40계단’에

3) 해당 질문에서 제시된 분단 및 전쟁에 관한 장소로는 ① 영도다리, ② 부산역, ③ 40계단, ④ 국제시장, ⑥ 아미동 피난민촌(현재 감천마을 및 까치고개), ⑦ 기타로 주어졌다.

가면 선생님이나 학부형이 매일 가야할 장소를 알려주는 곳으로 기억에 남아 있었다. 다른 응답자는 당시 부산 본역(현재 부산역)에서 건너면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수많은 사람이 운집하고, 오르내리던 기억을 회상하였다. 당시 부산일보사(부산 본역 건너편 위치) 근처 물을 길기 위해 오르내리던 사람들과 역에 기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던 지게꾼, 피난 당시 헤어진 가족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인파로 해당 장소를 기억하고 있었다. 실제 ‘40계단’은 현재의 장소에서 우측으로 25m인 곳에 아무런 표지 없이 남아있다. 이에 관한 인지여부에 관한 질문에서 대상 10인 중 2인은 인지, 나머지 8인은 알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피난과 관련한 장소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에 대한 질문에는 각각 영도다리, 부산 본역 앞 피난민촌, 아미동 피난민촌이라 응답하였다. 영도다리의 응답자는 이산가족들이 연락정보를 써 붙인 종이들이 가득했던 장소로 기억에 남아 있다고 하였다. 부산 본역 앞 피난민촌 응답자는 해당 장소에 들어가면 다시 찾아 나오지 못할 정도의 미로였던 점과 53년 대화재로서 해당 장소를 기억하였다. 또한 당시 초량지역(현재 동일초교 위치)에 위치한 저수지와 이에 도달하는 수많은 개울의 물이 맑아 피난민들과 유수의 기업들이 해당지역에 모여들어 삶의 터전을 꾸렸다는 내용을 전하였다.

이와 같이 비교적 좁은 지역에 내에 분단과 전쟁의 기억이 깃든 장소가 밀집되어 있어, 지역통일교육콘텐츠의 사회적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충분한 가치와 문화해설이 준비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2. 사회적 관광 개념에서의 지역통일교육 지원정책

통일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간극이 벌어지는 데는 청년층의 취업난 등 경제적 원인도 있겠지만, 세대 간 의식격차를 좁히지 못한 기존 통일교육의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으며, 기존의 통일교육은 통일이 민족의 당위적 목표라는 주입식 방식의 강연에 의존하여, 젊은 세

대에게 통일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전달하는데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김현정·강동완·임석준 2015). 이는 중앙정부가 개발한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통일교육 콘텐츠가 시행되어온 탓으로 좀 더 세밀하고 대상별 특화된 지역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 하에서 개별 정책지원을 시행하다 보면 어떤 특정 영역에 편중된 지원에 대해 사회 구성원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제도 입안 시에서부터 뚜렷한 정책적 기준이 필요하며, 지역통일교육 영역 또한 이러한 기초를 유지하여야 한다. 즉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에서 이론적 근거를 고찰할 수 있는 ‘사회적 관광’의 도입과 함께 교차 준수 목적이 해당 영역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공급영역과 수요영역을 분류하여 대상화해야 한다. 우선 분단의 기억이 담긴 지역통일교육 콘텐츠를 접근 가능한 계획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자체 및 지역 연구기관, 지역통일교육센터 등이 주관하여 발굴 및 개발하여야 한다. 계획이 해당 내용에 따라 지역 관광관련 생산자들의 참여를 모집할 수 있다. 숙박, 식음료 서비스, 문화관광 등 개별 비수기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참여 기관을 확인한다. 또한 해당 지자체는 사회적 관광의 목표 아래 지역통일교육 접근 소외 계층을 대상화한다. 초중고 청년계층, 고령층, 북한이탈주민 계층 혹은 다문화 가족, 유학생 등 공동체 내 대상계층을 유형화한다. 해당 계층에 대한 공공 지원하에 유관 연구기관 혹은 지역통일교육센터 등이 개발한 지역통일교육 콘텐츠 관광에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관광’ 개념 하의 지역통일교육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목표를 지향한다. 첫째,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통일교육 콘텐츠를 세밀한 계획 하에 개발하여 운용하도록 한다. 둘째, 관광 소외계층의 격차를 해소하며, 지역통일교육에 대한 소외 역시 해소한다. 셋째, 지역의 새로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 역내 지역개발에서 비교적 소외되어 온 원도심 지역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균형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관광’ 개념 하의 지역통일교육 지원정책의 시작은 공감할 만한 지역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함에서 시작된다.

본 연구의 대상인 부산지역은 한국전쟁 당시 대다수 피난민이 집중되었으며, 임시수도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여, 지역의 특수한 분단 기억이 간직된 지역이다. 따라서 지역통일교육 콘텐츠 개발과 관련한 연구가 상당 수준 진행되어 있기도 하다. 이미 관련 연구에서 ‘체험인 지형 지역통일교육’의 수행 적합 지역으로 부산 및 경남 지역의 콘텐츠 사례를 발굴하여 왔다. 부산 지역은 6.25전쟁 당시 임시수도로서 6.25전쟁의 역사와 상흔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지역으로, 지역 원도 심 내 한국전쟁 임시수도 기념관, 임시수도청사, 유엔기념공원,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구 피난민촌, 근현대역사박물관 등이 비교적 근거리 에 위치하고 있어, 현장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에도 용이함을 제시하였다(강동완·김현정 2015).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역민의 분단 기억과 지역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정책 우선순위의 원칙 하의 ‘사회적 관광’ 및 ‘교차 준수’에 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지역관광지원 정책과 지역통일교육콘텐츠 개발 전략을 통합할 개념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특히 이를 부산지역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 기존의 발굴된 관광자원을 재해석하여 이에 대해 사회적 역할로서 접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부산학, 분단사 등에서 연구해 온 사료를 조사하였으며, 장기간 부산지역에 거주해 온 지역민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분단과 연관된 장소의 문화적 해설 방안 및 지역통일교육콘텐츠 개발 방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관광 정책 하의 EU의 관광 지원정책 현황 및

목표, 역할 분석을 통해 이를 지역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정책에 도입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내 연구기관과 지역 통일교육센터 지자체가 연계하여 지역통일교육콘텐츠를 개발한다. 지역민이 공감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공동체 차원에서 사회적 관광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세부적 항목을 기준으로 접근 가능한 관광으로 지원정책을 분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들 지원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국가단위, 공동체 단위 및 지역단위의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조율을 통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관광 소외계층, 지역통일교육 소외계층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를 소비할 약자 계층을 대상화하여야 한다. 지자체는 비수기 기간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생산자와 소비자를 유연하게 매개하는 공적 영역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 관광산업에 대한 세대간, 소득간,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면서도 특성화 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역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세밀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역내 관련 시설 및 직원을 활용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도, 동시에 역내 관광 격차를 해소하고 관광접근성과 사회통합정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통일교육으로서 공간을 활용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제시할 수 있는 기초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동완·김현정. 2015. “체험인지형 지역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부산, 경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제18권 1호.
- 고한익. 2010.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균형성과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22권 제1호.
- 김현정·강동완·임석준. 2015. “통일교육의 로컬리티 관점 개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6권 1호.
- 유정우. 2008. “지속가능 관광개발의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와 관광거버넌스 간의 구조관계 연구.” 『관광학연구』 제32권 제3호.
- Ayuso, Silvia. 2007. “Comparing voluntary policy instruments for sustainable tourism: The experience of the Spanish hotel sector.”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Vol. 15, No. 2.
- Brundtland, Gro Harlem. 1987.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Brundtland Report). WCED.
- Tepelus, Camelia Monica and Rolando Castro Córdoba. 2005. “Recognition Schemes in tourism from ‘eco’ to ‘sustainability?’.”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Vol. 13.
- Weeden, Clare. 2002. “Ethical tourism: An opportunity for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Vol. 8 No. 2.
- 국가기록원. 2006.<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645> (최종검색일: 2014/10/20).
- CNAS (L'action sociale sourire compris). <http://www.cnas.fr/Votre-quotidien/La-retraite/ANCV-Seniors-en-Vacances> (최종검색일: 2014/10/20).
- Europe Senior Tourism. <http://www.europesenior tourism.eu/en/que>

sest/ (최종검색일: 2014/10/20).

European Commission. “Sustainable tourism.” http://ec.europa.eu/enterprise/sectors/tourism/sustainable-tourism/index_en.htm
(최종검색일: 2014/10/20).

European Union. “EcoDots - Europe Green Travel.”http://ec.europa.eu/enterprise/sectors/tourism/sustainable-tourism/index_en.htm
(최종검색일: 2014/11/5).

European Union. “Low-season tourism.” http://ec.europa.eu/enterprise/sectors/tourism/calypso/index_en.htm (최종검색일: 2014/11/5).

UNWTO. “Tourism and Sustainability.”<http://dtxtq4w60xqpw.cloudfront.net/sites/all/files/docpdf/sustainability.pdf> (최종검색일: 2014/10/20).

World Bank. “Sustainable Development Overview.” <http://www.worldbank.org/en/topic/sustainabledevelopment/overview#1> (최종검색일: 2014/10/20).

World Tourism Organization (UNWTO). <http://www.sids2014.org/index.php?page=view&type=66&nr=291&menu=1528>(최종검색일: 2014/11/5).

투고일 : 2018년 7월 31일 · 심사일 : 2018년 8월 21일 · 게재확정일 : 2018년 9월 8일

* 김현정은 동아대학교에서 국제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동아대학교 국제대학원 조교수로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based on EU Human Rights Policy”(『평화연구』 2018년 6월), “소수자 정책 관점에서 본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제도”(『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2017년 12월) 등이 있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Contents for Unification Education in Busan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Tourism

HyunJung Kim
(Dong-A University)

This study suggests the conceptual basis to integrate local tourism support policy and local unification educational contents development strategy through theoretical analysis about ‘Social Tourism’ and ‘cross-compliance’. Al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interpret existing tourism resources in order to apply it to the case of Busan. In this study, I investigated the data that have been studied in Pusanology and the history of Korean division. And I conducted interviews with 10 residents who have lived in Busan since the Korean War.

Key Words : unification education, unification educational contents, Social Tourism, Sustainability, cross-compliance